

목차

INTRO		수능 독서를 실전적으로 분석하는 법	문제 책	해설 책
2024학년도	수능	읽기 과정에서 초인지의 역할	P.014	P.006
2024학년도	수능	경마식 보도의 특성과 보완 방법	P.016	P.010
2024학년도	수능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의 처리 방법	P.018	P.016
2024학년도	수능	(가)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 / (나) 『노자』의 도에 대한 유학자들의 견해	P.020	P.022
PART 1		독서론	문제 책	해설 책
2024학년도	9월 모평	읽기 준비 단계	P.030	P.034
2024학년도	6월 모평	독서 동기의 두 유형	P.032	P.037
2023학년도	수능	독서 활동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	P.034	P.040
2023학년도	9월 모평	노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	P.036	P.043
2023학년도	6월 모평	읽기 능력과 매튜 효과	P.038	P.046
2022학년도	수능	독서의 목적과 가치	P.040	P.048
2022학년도	9월 모평	『서양 미술사』 독서 일지	P.041	P.051
2022학년도	6월 모평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한 독서	P.042	P.053
PART 2		주제 복합	문제 책	해설 책
2024학년도	9월 모평	(가) 조선 시대 신분 제도의 변화 양상 / (나) 실학자들의 신분제 개혁론	P.046	P.058
2024학년도	6월 모평	(가) 심리 철학에서 의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관점 / (나) 체험으로서의 지각	P.050	P.066
2023학년도	수능	(가) 유서의 특성과 의의 / (나) 조선 후기 유서 편찬에서 서학의 수용 양상	P.054	P.073
2023학년도	9월 모평	(가)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 / (나)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한 비판	P.058	P.080
2023학년도	6월 모평	(가) 『신어』에 담긴 육가의 사상 / (나) 『치평요람』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	P.062	P.088
2022학년도	수능	(가)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 / (나)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에 대한 비판	P.066	P.095
2022학년도	9월 모평	(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의 기능 / (나) 다양한 차원에서 광고의 영향	P.070	P.102
2022학년도	6월 모평	(가) 새먼의 과정 이론 / (나) 재이론	P.074	P.109
2022학년도	예시문항	(가) 음악에 대한 『여씨춘추』의 입장 / (나)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	P.078	P.116
2021학년도	수능	(가) 18세기 북학파의 북학론 / (나) 18세기 후반 청의 사회·경제적 현실	P.082	P.122
2021학년도	9월 모평	(가) 예술의 정의에 대한 미학 이론의 전개 / (나)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	P.086	P.129
2021학년도	6월 모평	(가) 과거제의 사회적 기능과 의의 / (나) 과거제의 부작용과 개혁 방안	P.090	P.137
PART 3		인문·예술	문제 책	해설 책
2022학년도	9월 모평	반자유주의 논증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P.096	P.146
2022학년도	예시문항	동일론과 이원론	P.098	P.152
2020학년도	수능	베이지주의의 조건화 원리	P.100	P.158
2020학년도	9월 모평	역사와 영화의 관계	P.102	P.164
2020학년도	6월 모평	에피쿠로스의 자연학과 윤리학	P.106	P.170

PART 4 사회

			문제 책	해설 책
2024학년도	9월 모평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이동권	P.110	P.176
2024학년도	6월 모평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	P.112	P.181
2023학년도	수능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서의 불확정 개념	P.114	P.185
2023학년도	9월 모평	유류분권	P.116	P.190
2023학년도	6월 모평	이중차분법	P.118	P.195
2022학년도	수능	브레튼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	P.120	P.200
2022학년도	6월 모평	베카리아의 형벌론	P.122	P.206
2021학년도	수능	예약의 법적 성질	P.124	P.210
2021학년도	9월 모평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	P.126	P.216
2021학년도	6월 모평	지식 재산 보호와 디지털세	P.128	P.222
2020학년도	수능	BIS 비율 규제로 살펴보는 국제적 기준의 규범성	P.130	P.228
2020학년도	9월 모평	소유권의 공시 방법	P.134	P.235
2020학년도	6월 모평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P.136	P.241

PART 5 과학 · 기술

			문제 책	해설 책
2024학년도	9월 모평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와 그 응용	P.140	P.248
2024학년도	6월 모평	고체 촉매의 구성 요소	P.142	P.252
2023학년도	수능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 측정 방법과 그 의미	P.144	P.256
2023학년도	9월 모평	검색 엔진의 웹 페이지 순서 결정	P.146	P.261
2023학년도	6월 모평	비타민 K의 기능	P.148	P.266
2022학년도	수능	운전자에게 차량 주위 영상을 제공하는 장치의 원리	P.150	P.271
2022학년도	9월 모평	'메타버스(metaverse)'의 몰입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기술	P.152	P.276
2022학년도	6월 모평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의 원리와 특징	P.154	P.280
2022학년도	예시문항	충전지의 충전과 방전	P.156	P.285
2021학년도	수능	3D 합성 영상의 생성, 출력을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	P.158	P.290
2021학년도	9월 모평	항(抗)미생물 화학제의 종류와 작용기제	P.160	P.295
2021학년도	6월 모평	영상 안정화 기술	P.162	P.299
2020학년도	수능	장기 이식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P.164	P.304
2020학년도	9월 모평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	P.166	P.310
2020학년도	6월 모평	개체성의 조건과 공생발생설에 따른 진핵생물의 발생	P.168	P.315

수능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새로운 수능 국어는 2022학년도 시험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

국어는 **공통과목**(문학 + 독서) +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or 언어와 매체)의
형식으로 출제됩니다.

2

총 45문항 중,
공통과목은 34문항(문학 17문항, 독서 17문항)이며,
선택과목은 11문항입니다.

	공통과목 (문학 + 독서)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or 화법과 작문)	→ 총 80분
문항 수	34문항 (문학 17문항, 독서 17문항)	11문항	→ 총 45문항
배점	76점	24점	→ 총 100점

수능 국어가 새롭게 바뀌었으니, 이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무용지물일까요?
아닙니다! 수능 시험의 형식은 바뀌었지만, 수능 국어 시험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학습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형식과 내용에 익숙해지되,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시험의 성격은 기출 분석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출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출 분석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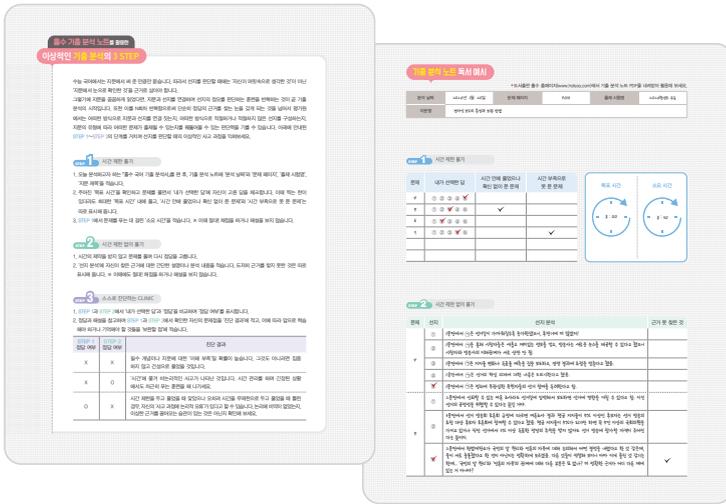
- 1 수능 국어 시험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 평가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물어보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3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들의 의미를 알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 4 정답을 선택할 때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찾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 5 문제를 틀리는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수능 국어 기출 공부 가능하도록! 1, 2, 3회독 ... 기출 분석의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에서
홀수 기출 분석 노트 PDF를
내려받아 활용해 보세요.

홀수 기출 분석 노트

- 문제의 답과 근거를 체크할 수 있는 기출 분석 노트
기출 분석 노트를 활용하면 수능 국어 기출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홀수 기출 분석 노트만 따라 하면, 제대로 된 기출
분석 가능!
기출 분석의 중요성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STEP별로 나누어
분석 단계를 안내합니다.
이대로 따라 한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홀로 공부하는, 제대로 된 기출 분석법 *문제 책 P.024의 기출 분석 노트 사용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시간 제한 풀기

1 STEP

STEP 1	시간 제한 풀기		
문제	내가 선택한 답	시간 안에 풀었으나 확신 없이 풀 문제	시간 부족으로 못 풀 문제
4	① ② ③ ④	✓	
5	① ② ③ ④ ⑤	✓	

홀수 기출 분석집 문제 책에 표시되어 있는 권장 목표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니다. 찍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 내에 풀고, 확신 없이 풀 문제와 시간 제한을 넘긴 문제는 따로 표시해 둡니다. 아직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풀기

2 STEP

STEP 2	시간 제한 없이 풀기	
문제	선지	선지 분석
	①	/문단에서 ㉠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했었으니, 후반기에 더
	②	/문단에서 ㉠을 통해 시청자들은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얻고, 방
		시청자와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 안 된.

같은 세트의 문제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분석해 봅니다. 지문을 분석하고 모든 선지의 근거를 적습니다. 이때 예도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

3 STEP

STEP 3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			
문제	정답	STEP 1		S
		내가 선택한 답	정답 여부	
4	⑤	① ② ③ ④	○ △ ×	① ② ③ ④
5	③	① ② ④ ⑤	○ △ ×	① ② ④ ⑤

채점을 하고 STEP 1과 STEP 2의 정답 여부에 따라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합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출 분석의 반복

4 STEP

회독 과 목 표	*회독	
	회독 횟수	내용
1~2회독(1학기)	① 지문의 핵심 요소 및 구조 완벽하게 분석 ② 모든 선지의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 ③ STEP 1~STEP 3의 과정 빠짐없이 시행	
3회독 이상(2학기)	① 지문은 흐름 중심으로 분석 ② 선지는 정답 중심으로 근거 확인 ③ STEP 2~STEP 3 중심으로 시행	

STEP 1~STEP 3의 과정을 밟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기나 학습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절하여 공부합니다.

구성과 특징

- 첫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문제 책과 해설 책으로 분권하였습니다.
- 둘째** 최신 5개년 평가원 기출 전 지문, 전 문항을 수록하여 지문 접근법과 문제 풀이법을 안내합니다.
- 셋째** 문제 유형과 정답을 표시를 통해 취약한 문제 유형을 진단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체감 난도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넷째** INTRO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통해 지문과 문제 유형별 출제 경향을 분석적으로 제시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고의 흐름

①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이다. 2'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3'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독자에 대한 개념과 독서에서의 초인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알코르 카시미 내용에서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초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는가?

☞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첫 번째, 독서 전략 점검 과정에 동원되는 초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4'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5'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6'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7'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②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③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④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⑤ 전략들의 적절한 것을 순서가 무엇인지
 ⑥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 ①~⑥에 대해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 선택

이때만은 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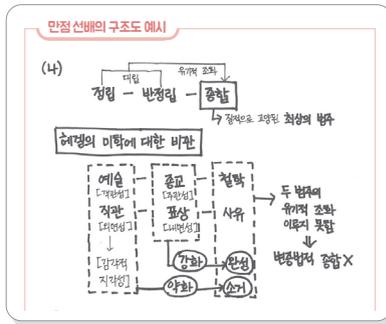
*동원: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물을 모으거나 풀기, 수단, 방법 따위를 집중함.

▶ 지문을 독해하는 사고의 흐름

독서 기출 분석의 핵심은 지문 구성 원리와 출제 요소를 전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수 해설은 단순 요약·정리의 차원을 넘어, 독해 과정에서의 논리적 사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자신의 사고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글을 보는 눈을 키우고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구조도를 통한 지문의 구성 파악

지문 구성 원리를 파악하여 자신만의 구조도를 그려 본 후 '만점 선배의 구조도 예시'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문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독서론의 경우 '핵심 분석'을 통해 자신이 놓친 지문의 중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분석

- 독서
 - 정의: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 → 초인지가 중요함
- 독서에서의 초인지
 - 정의: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
 -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함

(1) 독서 전략 점검 과정에 동원되는 초인지

-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①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 살펴보기
- 독서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 분류하기 → 문제점 파악

2.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 독서 진행 중간중간 이해한 내용 정리하기

[전개 방식 파악] 정답률 88%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률 100%

①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였고,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였다.

(가)의 1문단에서 '유서'의 개념을 밝히고, 중국 유서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2문단과 3문단에서는 조선의 유서에 대해 설명한 후 4문단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 등이 편찬한 유서가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밝히며 마무리하고 있다. (나)에서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의 해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에 대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기별로 소개하고 있다.

○ 오답률 100%

①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나)는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한 여부를 평가하였다.
 근거: (가)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 정보 파악] 정답률 83%

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답률 100%

③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하였다.

근거: (가)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응에 편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 오답률 100%

①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편찬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근거: (가)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던 때문이다.
 ② 조선에서는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 꼼꼼한 전문항 해설

친절하고 자세한 정·오답 풀이와 심화·보충 해설을 통해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것만은 챙기자

- *재이: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
- *견책: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
- *실정: 정치를 잘못함. 또는 잘못된 정치.
- *명분: 일을 피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
- *직언: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함.
- *징조: 어떤 일이 생길 기미.
- *풍조: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
- *미혹: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이것만은 챙기자

해당 지문에서 꼭 챙겨가야 할 어휘를 풀이하여, 기출 분석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두의 질문

• 1~2번

- Q:** 「경국대전」에서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기는 했지만, 이후 양인이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고 했으니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인'의 네 가지 신분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A:**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신분제를 '법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나누어 언급한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법적인 「경국대전」에서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양천제를 규정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법적

모두의 질문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Q&A 게시판에서 학생들이 많이 한 질문들과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애매한 내용이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적 문제

• 3번

-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정답 외의 선지를 골고루 골랐다. (가)와 (나)는 '인지'와 '지각'에 대한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지문이므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다양한 학파와 인물들의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A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 B를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는 다양한 지문에서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선지를 판단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선지가 A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문제적 문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심화 분석합니다. 정답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매력적 오답'을 집중적으로 살펴봄, 수험생이 흔히 갖기 쉬운 사고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INTRO

2024학년도 수능 독서 심화 분석

유형 분석

독서 영역에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내용 일치 문제야. 즉, 지문의 사실적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지, 따라서 선지에 제시된 내용과 지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돼.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서는 주로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의 인과 관계를 뒤바꾸거나, 서로 관계없는 내용을 연결하거나, 지문에서 활용한 용어들을 그럴듯해 보이게 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지를

유형 분석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각 문제의 유형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문제 풀이의 방식을 제공합니다. 자주 틀리거나 확신 없이 풀었던 문제 유형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광일의 KEY POINT

문장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이 문제에서, 특히 ㉓번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문과 선지의 문장이 개념을 어떻게 체계화·위계화하고 있는지, 즉 정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 선지에 언급된

박광일의 KEY POINT

2024학년도 수능의 지문과 문제에서 주목해야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콕 집어 설명해 줍니다. 기존의 평가원 출제 경향에 비해 무엇이 바뀌었고, 새로운 경향에 어떻게 대비해 가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설 책의 INTRO에는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한 박광일 선생님의 총평이 실려 있습니다.

6주 완성 학습 PLAN

✓ 체크하세요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01~02	P.014	읽기 과정에서 초인자의 역할	35:00			
	P.016	경마식 보도의 특성과 보완 방법				
	P.018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의 처리 방법				
	P.020	(가)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 / (나) 『노자』의 도에 대한 유학자들의 견해				
03	P.030	읽기 준비 단계	5:00			
	P.032	독서 동기의 두 유형	5:00			
04	P.034	독서 활동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	5:00			
	P.036	노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	5:00			
	P.038	읽기 능력과 매튜 효과	5:00			
05	P.040	독서의 목적과 가치	5:00			
	P.041	『서양 미술사』 독서 일지	5:00			
	P.042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한 독서	5:00			
06	P.046	(가) 조선 시대 신분 제도의 변화 양상 / (나) 실학자들의 신분제 개혁론	11:00			
07		복습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08	P.050	(가) 심리 철학에서 의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관점 / (나) 체험으로서의 지각	10:00			
09	P.054	(가) 유서의 특성과 의의 / (나) 조선 후기 유서 편찬에서 서학의 수용 양상	10:00			
10	P.058	(가)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 / (나)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한 비판	10:00			
11	P.062	(가) 『신어』에 담긴 육가의 사상 / (나) 『치평요람』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	11:00			
12	P.066	(가)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 / (나)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에 대한 비판	10:30			
13	P.070	(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의 기능 / (나) 다양한 차원에서 광고의 영향	10:00			
14		복습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15	P.074	(가) 새먼의 과정 이론 / (나) 재이론	10:30			
16	P.078	(가) 음악에 대한 『여씨춘추』의 입장 / (나)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	10:00			
17	P.082	(가) 18세기 북학파의 북학론 / (나) 18세기 후반 청의 사회·경제적 현실	10:00			
18	P.086	(가) 예술의 정의에 대한 미학 이론의 전개 / (나)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	10:30			
19	P.090	(가) 과거제의 사회적 기능과 의의 / (나) 과거제의 부작용과 개혁 방안	10:00			
20	P.096	반자유주의 논증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7:30			
	P.098	동일론과 이원론	9:30			
21		복습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4 주차	22	P.100	베이지주의의 조건화 원리	9:30		
	23	P.102	역사와 영화의 관계	7:30		
		P.106	에피쿠로스의 자연학과 윤리학	7:30		
	24	P.110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이동권	9:30		
		P.112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	7:00		
	25	P.114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서의 불확정 개념	8:30		
		P.116	유류분권	8:30		
	26	P.118	이중차분법	9:30		
		P.120	브레턴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	8:30		
	27	P.122	베카리아의 형벌론	7:00		
P.124		예약의 법적 성질	7:00			
28		복습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5 주차	29	P.126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	9:00		
		P.128	지식 재산 보호와 디지털세	9:00		
	30	P.130	BIS 비율 규제로 살펴보는 국제적 기준의 규범성	12:00		
	31	P.134	소유권의 공시 방법	10:00		
	32	P.136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10:30		
	33	P.140	조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와 그 응용	8:00		
		P.142	고체 촉매의 구성 요소	8:00		
	34	P.144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 측정 방법과 그 의미	8:30		
		P.146	검색 엔진의 웹 페이지 순서 결정	8:30		
	35		복습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6 주차	36	P.148	비타민 K의 기능	8:30		
		P.150	운전자에게 차량 주위 영상을 제공하는 장치의 원리	8:30		
	37	P.152	'메타버스(metaverse)'의 몰입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기술	7:00		
		P.154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의 원리와 특징	9:00		
	38	P.156	충전지의 충전과 방전	9:30		
		P.158	3D 합성 영상의 생성, 출력을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	9:00		
	39	P.160	항(抗)미생물 화학제의 종류와 작용기제	8:30		
		P.162	영상 안정화 기술	8:30		
	40	P.164	장기 이식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8:30		
		P.166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	8:30		
41	P.168	개체성의 조건과 공생발생설에 따른 진핵생물의 발생	12:00			
42		복습				

🔊 1회독 6주 완성 프로그램 - 2, 3회독을 할 때에는 Day2~3일 분량을 묶어 하루치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INTRO

수능 독서를
실전적으로
분석하는 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이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A]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예가 그것이다.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독자는 ㉠지급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간다.

1.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서 전략을 선택할 때 독서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② 독서 전략의 선택을 위해 개별 전략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③ 독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독자는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 ④ 독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 ⑤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선택한 전략은 점검과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2.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서 진행 중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독자 스스로 독서 진행의 문제를 점검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 ② 독서 진행 중 독자가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점검을 잠시 보류해야 한다.
- ③ 독서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 ④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류하는 것은 독서 문제의 발생을 막는다.
- ⑤ 독서가 멈추지 않고 진행될 때에는 초인지의 역할이 필요 없다.

3. <보기>는 읽기를 읽은 학생이 독서 중 떠올린 생각이다. ㉠~㉡과 관련하여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 처음 나왔을 때는 무시하고 읽었는데 다시 등장했으니, 문맥을 통해 의미를 가정하고 읽어 봐야겠어. …… ㉠

↓

○ 더 읽어 보았지만 여전히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하지?
○ 관련된 내용을 앞부분에서 다시 찾아 읽든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보든가, 다른 책들을 찾아볼 수 있겠네. …… ㉡
○ 검색을 하려면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겠네. …… ㉢
○ 검색은 나중에 하고, 먼저 앞부분을 다시 읽어 봐야겠다. 그다음에 다른 책을 찾아보아지. …… ㉣
○ 그럼 일단 앞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 읽어 보자.

↓

○ 앞부분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되네.
○ 이 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어. …… ㉤

↓

○ 이제 이 용어의 뜻이 이해되네. 그럼 계속 읽어 볼까?

- ① ㉠: ㉠을 판단하여 사용 중인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② ㉡: ㉡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떠올렸다.
③ ㉢: ㉢을 고려하여 전략의 사용 조건을 확인했다.
④ ㉣: ㉣을 판단하여 전략들의 적용 순서를 결정했다.
⑤ ㉤: ㉤을 판단하여 최적이라고 생각한 전략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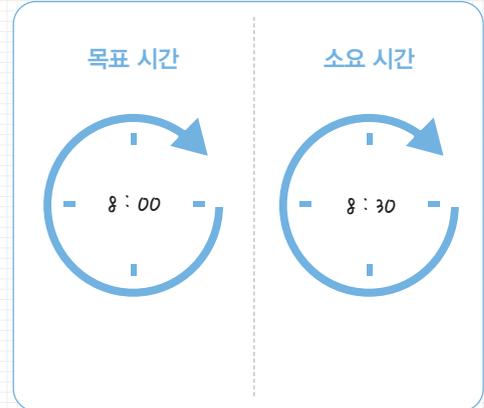
기출 분석 노트 독서 예시

*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에서 기출 분석 노트 PDF를 내려받아 활용해 보세요.

분석 날짜	2024년 1월 20일	문제 페이지	P.016	출제 시험명	2024학년도 수능
지문명	경마식 보도의 특성과 보완 방법				

STEP 1 시간 제한 풀기

문제	내가 선택한 답	시간 안에 풀었으나 확신 없이 푼 문제	시간 부족으로 못 푼 문제
4	① ② ③ ④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⑤		
5	① ②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 ⑤	✓	
6	①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④ ⑤		
7	① ② ③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⑤		✓



STEP 2 시간 제한 없이 풀기

문제	선지	선지 분석	근거 못 찾은 것
4	①	1문단에서 ㉠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됐으니, 후반기에 더 많겠지!	
	②	1문단에서 ㉠을 통해 시청자들은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얻고, 방송사는 새로운 뉴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으니 시청자와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 안 됨.	
	③	1문단에서 ㉠은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을 집중 보도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음.	
	④	1문단에서 ㉠은 선거의 핵심 의제에 대한 내용은 도외시한다고 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⑤	1문단에서 ㉠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한다고 함.	
5	①	2문단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여론 조사라도 선거일에 임박해서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함. 이런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일 거야.	
	②	3문단에서 선거 방송회 토론회 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는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음. 평균 지지율이 5%가 되기만 하면 꼭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선거 방송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는 뜻이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2문단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해 논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한 것 같은데, 둘이 서로 충돌했다고 한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음. 다른 것들이 적절해 보이니 아마 이게 틀린 것 같기는 한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의 관계에 대해 다른 부분은 또 없나? 더 정확한 근거가 어디 다른 데에 있는 거 아니야?	✓

	④	2문단에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실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선거일에도 당연히 가능하겠지. 그런데 결과 보도는 선거일 6일 전~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되니까,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는 결과를 보도할 수 있을 거야.	
	⑤	4문단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이 일부 후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했음.	
6	①	㉓는 ㉑을 통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 참여자의 수를 제한해야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 그러나 심층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시간의 후보자의 수나 시간의 제한과 관련 없다고 한다면 ㉓의 입장은 약화될 거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㉓는 ㉑을 통해 유권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후보자들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봄. 그러나 ㉑ 때문에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유명 정치 신인이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㉓의 입장은 약화되겠지.	
	③	㉓는 ㉑이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봄. 그러나 ㉑의 적정 토론자 수 제한 기준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㉓의 입장은 약화될 거야.	
	④	㉓는 ㉑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의 참여자와 참여하지 못한 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봄. 그러나 ㉑ 때문에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가 아주 뛰어난 역량을 보여 주었다고 해도 차별적인 인식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면 ㉓의 입장은 강화될 거야.	
	⑤	㉓는 ㉑ 때문에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된다고 봄. 그러나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를 활용해서 주요 후보자들과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㉓의 입장은 강화될 거야.	
7	①	1차 조사에서는 A후보-B후보-C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서로 10%p 이상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밖에 있어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을 써도 ㉑과 ㉒ 모두 문제 없을 거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차 조사에서는 A후보-B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1%p밖에 안 되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㉑에 위배되고, 오차 범위 안에 있음에도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했다는 점에서 ㉒에도 위배돼.	
	③	㉑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선거일 6일 전부터 금지된다고 보니까, 선거일 4일 전에 3차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 안 되겠지? 또 3차 조사에서는 A후보-B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1%p밖에 안 되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하는 건 ㉑에도 위배되겠지.	
	④	㉑는 서열을 나타내서 보도하는 걸 금지하는데, 1차 조사 결과에서 각 후보에 순위를 매겨서 보도해도 되나? ㉒번이 확실하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일단 안 짚고 넘어가는데,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음. 그래도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건 ㉑에 위배되는 게 맞을 거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⑤	㉑는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일 때 "경합"으로 표현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2차 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는 ㉑에 위배되지 않아. 하지만 ㉑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선거일 6일 전부터 금지된다고 했으니까, 선거일 4일 전에 3차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 안 되겠지.	

PART

3

인문 · 예술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던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 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 ③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 ④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 ⑤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2.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 ②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③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 ④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⑤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과 ㉢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3. C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③ 어떤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지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 ④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윗글의 ㉠에 입각하여 학생이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 논의해 보자.

• H의 가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 주는 다른 신경 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

• H의 실험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한다.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서 100차례 관측한다.

○ 논의: [A]

- ①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
- ②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④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INTRO

수능 독서를 실전적으로 분석하는 법

문제 책 PAGE	해설 책 PAGE	지문명	문제 번호						
P.014	P.006	읽기 과정에서 초인지의 역할	1. ⑤	2. ③	3. ①				
P.016	P.010	경마식 보도의 특성과 보완 방법	4. ⑤	5. ③	6. ②	7. ②			
P.018	P.016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의 처리 방법	8. ③	9. ①	10. ⑤	11. ②			
P.020	P.022	(가)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 / (나) 『노자』의 도에 대한 유학자들의 견해	12. ③	13. ①	14. ④	15. ④	16. ⑤	17. ④	



[1~3] 읽기 과정에서 초인지의 역할

최근 평가원 시험에서는 독서 방법이나 독서의 의미 등을 다룬 독서론 영역의 지문이 출제되고 있어, 2024학년도 수능의 독서론 지문에서는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 독서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데 활용되는 '초인지'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실제 수능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지문인 만큼 긴장감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될 수 있어. 그러니 최근에 출제된 독서론 지문들을 충분히 분석하며 대비해 보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이다. **2**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3**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독서에 대한 개념과 독서에서의 초인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초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지?

2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첫 번째로, 독서 전략 점검 과정에 동원되는 초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5** 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6**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7**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8**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9**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예가 그것이다. **10**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독서 전략 점검 과정에서 독서 전략에 생긴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독서 전략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 살펴보기 - 독서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 분류하기 ⇒ 문제점 파악	-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 진행 -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함 ⇒ 독서 진행 중간중간 이해한 내용 정리하기(문제 발생 여부 점검 가능)

3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두 번째로, 독서 전략 조정 과정에 동원되는 초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12** 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독자는 ㉠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13** 또 ㉡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14** 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15**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간다. 독서 전략의 조정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독서 전략의 조정 과정
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②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③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④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⑤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⑥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 ①~⑥에 대해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 선택

이것만은 챙기자

- *동원: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 수단, 방법 따위를 집중함.
- *능동적: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이는 것.

핵심 분석

- 독서
 - 정의: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 → 초인지가 중요함
 - 독서에서의 초인지
 - 정의: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
 -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함
- (1) 독서 전략 점검 과정에 동원되는 초인지
1.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①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 살펴보기, ② 독서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 분류하기 → 문제점 파악
 2.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 독서 진행 중간중간 이해한 내용 정리하기
- (2) 독서 전략 조정 과정에 동원되는 초인지
- 독서 전략의 조정 과정
 - 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②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③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④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⑤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⑥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 선택
 -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함 ⇒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감

세부 정보 파악 | 정답률 97

유형 분석

이 문제는 독서 영역에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내용 일치 문제야. 즉, 지문의 사실적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지, 따라서 선지에 제시된 내용과 지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의 경우 내용 중 일부만 지문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게 만든 경우가 많아.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 선지의 세부적인 진술을 꼼꼼하게 비교하며 확인해야 해.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풀이

- ⑤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선택한 전략은 점검과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근거: ③¹¹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⑤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간다.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선택한 전략을 점검과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독서 전략을 선택할 때 독서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거: ③¹² 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독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 ② 독서 전략의 선택을 위해 개별 전략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근거: ③¹³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 ③ 독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독자는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근거: ①¹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이다. ③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④ 독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근거: ③¹¹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④ 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유형 분석

이 문제는 지문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내용 일치 문제야. 즉, 지문의 [A] 부분에 한정하여 사실적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읽고 선지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돼.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서는 주로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의 인과 관계를 뒤바꾸거나, 서로 관계없는 내용을 연결하거나, 지문에서 활용한 용어들을 그럴듯해 보이게 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점에 주의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자!

2.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풀이

㉓ 독서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근거: ㉒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㉑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예가 그것이다.

오답풀이

㉑ 독서 진행 중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독자 스스로 독서 진행의 문제를 점검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근거: ㉑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㉒ 독서 진행 중 독자가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점검을 잠시 보류해야 한다.

근거: ㉒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㉑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류하는 것은 독서 문제의 발생을 막는다.

근거: ㉑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A]에서 독서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류하는 것은 독서 문제의 발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독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㉕ 독서가 멈추지 않고 진행될 때에는 초인지의 역할이 필요 없다.

근거: ㉑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㉒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㉑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에서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독서가 멈추지 않고 진행될 때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인 초인지의 역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 | 정답률 94



유형 분석

'지문-〈보기〉-선지'의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였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문뿐 아니라 〈보기〉에 제시된 상황 또한 정확하게 분석해야 해. 즉 〈보기〉를 읽을 때에도 지문을 읽을 때처럼 집중해서 학생이 ㉠~㉡과 관련하여 독서 중에 어떤 생각을 떠올렸는지 파악하며 읽고, 이를 학생의 생각 ㉡~㉢와 잘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를 푸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야.

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독서 중 떠올린 생각이다. ㉠~㉡과 관련하여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 ㉡: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 ㉢: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 ㉣: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 ㉤: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보기〉

○ ¹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 ²처음 나왔을 때는 무시하고 읽었는데 다시 등장했으니, 문맥을 통해 의미를 가정하고 읽어 봐야겠어. ㉠



○ ³더 읽어 보았지만 여전히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하지?
○ ⁴관련된 내용을 앞부분에서 다시 찾아 읽든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보든가, 다른 책들을 찾아볼 수 있겠네. ㉡
○ ⁵검색을 하려면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겠네. ㉢
○ ⁶검색은 나중에 하고, 먼저 앞부분을 다시 읽어 봐야겠다.
⁷그다음에 다른 책을 찾아봐야지. ㉣
○ ⁸그럼 일단 앞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 읽어 보자.



○ ⁹앞부분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되네.
○ ¹⁰이 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어. ㉤



○ ¹¹이제 이 용어의 뜻이 이해되네. 그럼 계속 읽어 볼까?

정답풀이

① ㉠: ㉠을 판단하여 사용 중인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근거: ㉢ ¹²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 〈보기〉 ²처음 나왔을 때는 무시하고 읽었는데 다시 등장했으니, 문맥을 통해 의미를 가정하고 읽어 봐야겠어.

〈보기〉의 ㉡에서 학생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무시하고 읽다가, 그 용어가 다시 등장하자 문맥을 통해 용어의 의미를 가정하고 읽어 봐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을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가 ㉠을 판단하여 사용 중인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 ㉡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떠올렸다.

근거: ㉢ ¹³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 〈보기〉 ⁴관련된 내용을 앞부분에서 다시 찾아 읽든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보든가, 다른 책들을 찾아볼 수 있겠네.

〈보기〉의 ㉡에서 학생은 용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들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전략들을 떠올린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 ㉢을 고려하여 전략의 사용 조건을 확인했다.

근거: ㉢ ¹³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 〈보기〉 ⁵검색을 하려면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겠네.

〈보기〉의 ㉡에서 학생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을 고려하여 전략의 사용 조건을 확인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 ㉣을 판단하여 전략들의 적용 순서를 결정했다.

근거: ㉢ ¹⁴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 〈보기〉 ⁶검색은 나중에 하고, 먼저 앞부분을 다시 읽어 봐야겠다. ⁷그다음에 다른 책을 찾아봐야지.

〈보기〉의 ㉡에서 학생은 먼저 앞부분을 다시 읽어 본 후 다른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 자료 검색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순서를 조절하고 있다. 이는 ㉣을 판단하여 전략들의 적용 순서를 결정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 ㉤을 판단하여 최적이라고 생각한 전략을 선택했다.

근거: ㉢ ¹⁴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 〈보기〉 ¹⁰이 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어.

〈보기〉의 ㉡에서 학생은 앞부분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된 분야의 다른 책을 찾아보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을 판단하여 최적이라고 생각한 전략을 선택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PART

3

인문 · 예술

문제 책 PAGE	해설 책 PAGE	지문명	문제 번호					
P.096	P.146	반자유이지 논증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1. ⑤	2. ④	3. ⑤	4. ④		
P.098	P.152	동일론과 이원론	1. ⑤	2. ①	3. ①	4. ④	5. ③	6. ③
P.100	P.158	베이지주의의 조건화 원리	1. ②	2. ②	3. ④	4. ⑤	5. ②	
P.102	P.164	역사와 영화의 관계	1. ④	2. ③	3. ①	4. ⑤	5. ②	6. ④
P.106	P.170	에피쿠로스의 자연학과 윤리학	1. ②	2. ④	3. ⑤	4. 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교의 흐름

종교적 인간관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관점에 대해 설명할 것야.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상황으로 예를 들고 있어.

먼저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고려하는 선결정 가정에 대해 설명하려나 보군.

다음으로는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고려하는 무작위 가정에 대해 설명할 것야.

반자유의지 논증과는 다른 입장을 언급할 것야.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뜻이야!

1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2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3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4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5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6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종교적 인간관과 유물론적 인간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였어. 종교적 인간관: 인간 = 물리적 실체인 몸 +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 → 영혼으로 결정 / 유물론적 인간관: 인간 = 영혼은 존재 X, 물리적 실체인 몸 → 뇌의 신경 사건으로 결정 7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8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9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10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 글의 핵심 화제임을 드러내었어.

11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12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13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15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16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17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18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19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20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모두,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군.

21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22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23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중 무작위 가정을 고려한 것에 따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말하는 결론(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전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된다는 것이지. 24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5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6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27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

지 않아야 한다. 임의의 선택이 자유의지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제시되었어. 28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29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반자유의지 논증이 고려하는 '선결정 가정'은 임의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본 전제에서부터 조건 ②와 배치되므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30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31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③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던 그렇지 않은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32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④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① 자신이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는 조건, ② 자신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한 점을 기억해 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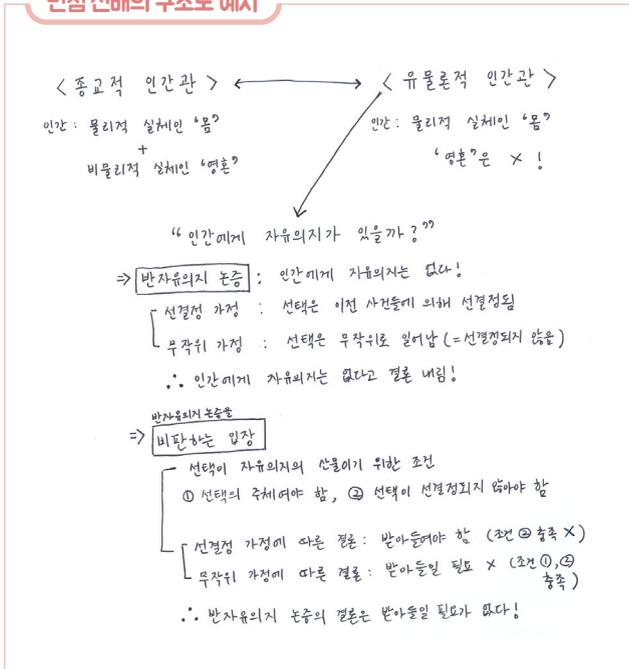
33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34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5 갑의 이러한 신경 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36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37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38 결국 ⑤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무작위 가정은 사건이 선결정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건 ②를 만족하는데, 이 경우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고 했으므로 조건 ①도 만족하게 돼. 즉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무작위 가정에서의 선택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따를 필요가 없음을 밝힌 것이지.

반자유의지 논증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를 아서 설명할 것야.

이것만은 챙기자

- *원천: 사물의 근원.
- *산물: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나는 사물이나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염두: 생각의 시초. 마음의 속.

만점 선배의 구조도 예시



| 세부 정보 파악 | 정답률 93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풀이

⑤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택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②¹²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택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③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택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택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택정되지 않고 무작위로 일어날 가능성, 즉 무작위 가정도 고려한다.

오답풀이

- ①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①⁴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⑤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근거: ①⁴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⑤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⑥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유물론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인 몸에 해당하는 뇌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본다고 했으므로, 인간의 선택 자체를 물리적 사건으로 봄을 알 수 있다.
- ③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근거: ①²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 ④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근거: ①²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③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

4. 뒷글의 ㉠에 입각하여 학생이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 논의해 보자.

• H의 가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 주는 다른 신경 사건(선결정)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

• H의 실험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한다.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서 100차례 관측한다.

○ 논의:

✔ 정답풀이

④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2¹²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15^{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16^{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18^{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19^{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 3²²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H의 가설은 임의의 선택이 항상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은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내린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결정 가정에 해당하는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은 여전히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 오답풀이

①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

근거: 2¹²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15^{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16^{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 3²²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②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근거: 2¹²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13^{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임의의 선택은 모두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고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보는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 없게 된다.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근거: 2¹²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은 임의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는 가정이 참이 아님을 의미한다.

⑤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근거: 3²²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23^{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적 문제

• 4번

정답인 ④번 외에 다른 선지를 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비슷하였다. <보기>에서 'H의 가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정오 판단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의 가설'을 보면,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 주는 다른 신경 사건'이 이미 존재함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곧 '임의의 선택(=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 주는 다른 신경 사건이 존재)된다'고 보는 '선결정 가정'에 해당한다. 즉 4번은 선택이 매번 선결정됨을 입증하려는 H의 실험에 대해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 ①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묻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때 H의 가설이 실험 결과를 통해 입증된다는 것은 선결정 가정이 참이라는 의미이므로, ①번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을 거부할 수는 없다. 반대로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은 선결정 가정이 거짓이라는 의미이므로, ③번의 진술 역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문단에서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라고 했으므로,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3문단에서 ⑤은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다고 했으므로,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을 분석

매력적 오답	매력적 오답	매력적 오답	정답	
①	②	③	④	⑤
9%	9%	10%	69%	3%

MEMO